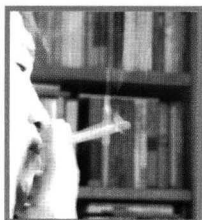


오랜만에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걸 보면 꽤나 오랜만인 게 확실하다) 청소를 했다. 털고 쓸고 닦고, 그러나 부질없다. 청소 끝! 흐뭇하게 책상에 앉으니, 어느새 책상 위에 다시 내려앉은 허연 먼지들... 어느 책에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먼지가 회백색인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 죽은 피부조각들이기 때문이라니 뭐라나. 걸레로 다 닦아낸 다음 다시 내려앉은 저 희뿌연 먼지들은 그 사이에 죽어 먼지로 돌아간 내 몸의 일부인가.

조병준 | 시인·문화평론가

먼지의 방에 핀 게으름꽃



먼지들처럼 꽤나 많은(많은가? 잘 모르겠다. 많은 것도 같고, 별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들이 이 방에서 생겨났다. 먼지들처럼 폴폴 어딘가 누군가에게로 날아간 내 글들은 지금 어떤 형상이 되어 있을까. 내 글이 실렸던 종이들 중에 어찌면 아주 많은 페이지들은 이미 재생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찌면 연기와 재로 변신했을 것이다. 먼지에서 먼지로, 재에서 재로, dust to dust, ash to ash... 그 글들은 내 몸, 내 정신, 내 영혼이 만들어낸 먼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렇게 말하고 나니 꽤나 쓸쓸해지는군.

폴폴 날아서 누군가의 정신에 내려앉은 내 글들은 어떤 해악을 그 누구에게 끼쳤을까. 제발, 그이의 정신에 천식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기를! 그저 가벼운 재채기 정도로 끝내 주었기를. 아, 물론 글쟁이를 업으로 선택(글쎄, 그게 과연 선택이었을까. 선택의 탈을 썼던 운명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이요, 과장일까)했을 때 내게도 꿈이 있었다. 다른 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맛있는 찌개 같은 글을 쓰고 싶다고. 가끔은 돌도 튀어나오고 다 못 씻어낸 쌀벌레 토막이 나올지라도, 어쨌든 고슬고슬한 밥 같은 글을 쓰고 싶다고. 그렇게 꿈꾸었는데 찌개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기껏해야 먼지를 만들어냈던 것이란 말인가. 오, 먼지 폴폴 날리는 허망한 인생이여!

글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확률보다는

게으름 필 확률이 훨씬 높은 이 방

이 글을 쓴 조병준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방송개발원 연구원, 광고 프로덕션 조감독, 자유 기고자, 극단 기획자, 방송 구성작가, 대학 강사, 번역자 등 여러 직업을 거쳤고, 1993년 말부터 1995년까지, 또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인도와 유럽 등지를 여행했고, 그 사이 세 번에 걸쳐 약 12개월 간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집'에서 자원봉사자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1992년 <세계의 문화> 가을호에 '평화의 집' 등 3편의 시로 등단했고 1995년 말부터 문화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오후 4시의 평화: 제 친구들과 인사를 하세요>, <길에서 만나다> 등이 있다.

먼저 같은 글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글들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주 한 잔 살 돈을 만들어 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도망치고 싶지만, 또 도망치곤 하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 면지의 방에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몇 달을 버리고 버려다 어느 재활용 매장에서 그 생김새와 가격에 한눈에 반해 당장 이 면지의 방으로 데려온 이 책상에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자판 위의 글자가 지워질 정도로 두드려 댄 이 노트북 컴퓨터도 물론 잊으면 안 된다.

내 몸이 숲한 식물들과 동물들의 잔해로 구성되어 있듯, 내 글 또한 숲한 남자와 여자들의 글의 잔해로 이루어졌을 터이니, 저 오래된 책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책상 앞 남향 창으로 보이는 저 허술한 달동네의 지붕들과 낮은 서울의 하늘, 사막 한 가운데 말라가는 오아시스처럼 애처로운 저 몇 그루의 나무들, 저 아래 골목길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 방 주변을 기웃거리는 풍경에도 감사해야 한다. 아, 마지막으로 이 방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 우주 어디론가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어 사라지는 음악소리들에는 감사와 조의를 동시에 표해야 하겠다.

사람들은 이 면지의 방을 '작업실'이라고 부른다. 내 직업은 글쟁이이고, 이 방에서 거의 모든 글이 씌어지니 틀린 말은 아니다. 올빼미인지라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픽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항상 이불이 깔려 있거나 가끔 꺼져 있는 이 방은 또 '침실'이기도 하다. 옥탑방까지 해서 방이 두 개나 더 있는데도 나는 주로 이 방에서 잠이 든다. 자고로 일하는 공간과 휴식의 공간은 분리시키라 했는데, 그 충고를 따르기에 나는 너무 게으르다. 의자에서 내려와 그냥 픽 쓰러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런 습관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글이 막힌다 싶으면 바로 책상을 떠나 LP와 CD, DVD들이 사이렌들처럼 나를 유혹하는 거실로 가는데는 채 열 걸음도 걸리지 않는다. 이 방과 거실 사이엔 문도 없다. 그저 오래 전에 떼어낸 미닫이 문턱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귀찮으면 두 발짝만 옮긴다. 손님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준비된 상태인 이불에 드러누우면 된다. 드러누워 책장을 들추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건 말 안 해도 다들 짐작하겠지.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자유를 100퍼센트 보장하는 작업실을 어찌 좋은 작업실이라 할 수 있을까. 글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확률보다는 게으름 필 확률이 훨씬 높은 이 방. 이 방에서 면지가 폴폴 날리는 건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가끔 궁금하긴 하다. 나도 남들처럼 사무실을 하나 얻어 순전히 글만 쓰는 작업실을 꾸미면 내 글의 생산성이 꼭 높아지려나? 정말 나로서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어떤 인기 작가들처럼 하루에 정해놓고 딱 8시간만 글쓰기 노동에 바칠 수 있으려나? 설령 그렇다 쳐도 사무실 얻을 돈을 모으려면 도대체 몇 쪽지의 원고를 써야지? 이 게으른 천성에 사무실 오고가는 시간과 땀이 아까워 그냥 이 방에서 몽기적거릴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 그러다가 일명 작업실 또한 두 번째 면지의 방이 되면 어찌지?

꿈 깨자. 내겐 이 면지의 방 하나로 충분하다. 내게 게으를 수 있는 자유, 빈둥거릴 수 있는 자유, 때론 바닥을 칠 때까지 가라앉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는 이 방 하나면 충분하다. 어차피 면지로 돌아갈 인생이요, 면지로 돌아갈 우주라고 하지 않던가 말이다. 쌓이고 또 쌓이고, 때로는 작은 공처럼 굴러다니는 저 면지들, 참 지겹지만 어찌다 늦은 오후의 비스듬한 햇살 속에서 그 면지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가 말이다. 내 글도 어찌다 가끔씩은 그렇게 빛나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